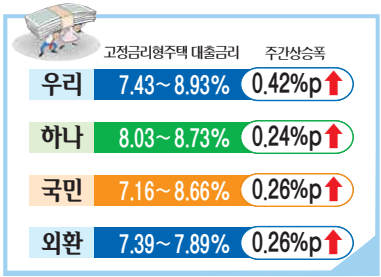


주택대출금리 또 급등 ... 연 9%대 육박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고정금리 8.93%까지 '껑충' 변동금리도 인상 가능성 커 서민가계 이자 '눈덩이'



최근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연 9%대에 육박하고 있다.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약화와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시중금리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의 금리 역시 동반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

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는 16일 현재 연 7.43~8.93%로 지난 주 초에 비해 연 0.42%포인트 급등했다.

최고 금리가 9%에 근접하면서 1월 14일 9.44%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달 13일 이후 한 달여간 상승폭은 0.88%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주 초보다 0.24%포인트 상승한 8.03~8.73%를 기록하면서 최저금리가 5개월 만에 8%대로 진입

했다. 국민은행은 7.16~8.66%로 지난 주 초보다 0.26%포인트 올랐으며 지난 달 6일에 비해서는 0.93%포인트 급등했다.

외환은행은 7.39~7.89%로 일주일만에 0.26%포인트 상승했으며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7.35~8.75%와 6.81~8.27%로 각각 0.24%포인트와 0.21%포인트 올랐다.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최저금리를 종전보다 0.20%포인트 높은 7.40%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대출 고정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은행채(신용등급 AAA급 3년물 기준) 금리가 4월말 5.47%에서 지난 10일 6.40%까지 치솟는 등 강한 오름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한달반 동안 금리 상승폭이 정책금리의 네차례 인상과 맞먹는 수준이다. 시중금리의 상승은 10개월째 정책금리가 동결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히 꺾이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선에 육박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대출 변동금리의 기준

이 되는 양도성에금증서(CD) 금리도 동반 오름세를 보일 수 있어 주택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은행에서 주택 담보로 1억원을 대출한 경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부담은 100만원 늘어나게 된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원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은행채와 CD 발행증가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으로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주택대출의 연체증가와 이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채권발행과 대출경쟁을 억제하고 주택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살인물가'에도 신용카드 '평평'

1분기 112조원 사용 16% ↑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도 신용카드 지출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12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1% 늘었다.

신용판매가 86조원으로 18.3% 늘었고 이 중 할부 판매가 18조3천억원으로 36.6% 급증했다. 현금대출도 26조5천억원으로 10.0% 증가했고 해외 이용실적도 1조3천억원으로 18.6% 늘었다.

소비자물가가 5% 가까이 치솟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도 카드를 이용한 소비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급 카드수는 업체들의 회원 확대 전략에 따라 작년 말에 비해 111만장 늘어난 9천67만장으로 작년 9월 말 이후 재차 9천만장을 넘어섰다.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는 전체의 24.5%인 2천224만장으로 작년 말에 비해 66만장(2.9%) 감소했다.

카드 이용규모 증가로 총자산이 늘어나고 분기 중 배당(8천874억원)을 실시함에 따라 전업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평균 23.0%로 작년 말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3월 말 현재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3.52%로 작년 말 대비 0.27%포인트 하락했으며 연체채권도 1조4천593억원으로 3.11% 감소했다. /연합뉴스

'돈가뭄' 기업, 대출로 연명

제조업체 대출증가율 6년만에 최고

고유가 생산원가 부담 늘어 465조원

예금은행이 제조업체에 대출한 자금의 증가율이 6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치솟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가가 늘어나 운전자금이 부족해지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1분기 중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전체 산업대출 잔액은 465조8천229억원으로 전분기말에 비해 5.9%인 25조7천798억원 늘었다. 이는 같은 분기의 가계 대출금 증가율인 1.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산업대출금은 전분기말 대비 6.7% 늘어나 2002년 1분기의 15.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 이 대출금의 증가율은 2003년 4.8%, 2004년 3.4%, 2005년 2.4%, 2006년 1.9%, 2007년 4.0% 등이었다.

제조업 산업대출금 가운데 운전자금의 대출 증가율은 1분기에 6.9%에 이르러 2002년 1분기의 1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제조업 운전자금 대출 증가율은 2002년 11.0%, 2003년 5.3%, 2004년 3.

8%, 2005년 2.7%, 2006년 1.5%, 2007년 3.8% 등이었다.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을 제외한 원재료비,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제조업 시설자금의 1분기 증가율은 6.1%로 작년 2분기 11.3%, 3분기 9.5%, 4분기 8.3% 등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됐다.

김화용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과장은 "우량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됐다"면서 "국제 원자재가격과 환율 상승 등이 산업대출금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조업 외에 건설업 산업대출금은 7.8%, 서비스업은 5.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산업대출금을 성격별로 보면, 운전자금은 5.6% 늘었고 시설자금은 6.6% 증가했다. /연합뉴스



어린이들 시장보기 체험

광주 유일어린이집 원생 40명이 17일 서구 양동시장 채소가게에서 고추·호박·가지 등을 직접 구입하는 시장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이날 1명당 3천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구입했다. /위리라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유일어린이집 원생 40명이 17일 서구 양동시장 채소가게에서 고추·호박·가지 등을 직접 구입하는 시장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이날 1명당 3천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구입했다. /위리라기자 jrwi@kwangju.co.kr

유가 200달러로 급등뎀

산업계 원가부담 15% ↑

연평균 국제 유가가 200달러로 급등하면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적으로 원가 부담이 평균 14.6%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삼성경제연구소는 '2008 하반기 국제유가 전망' 자료에서 "유가가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어 200달러 시대가 미치는 파급을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연구소는 연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200달러로 오르면 제조업 원가가 18.9%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원유를 원 부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석유화학이 65.12%로 원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1차급속은 5.97%, 전기전자는 3.28%(반도체 2.70%), 수송장비는 5.78%(자동차 5.97%)씩 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밖에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금융보

험이 1.73%, 광산품이 1.54%, 도소매가 4.43%, 음식숙박이 7.51%로 원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운수보관은 26.78%나 원가가 늘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자체 흡수하게 되면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올 들어 경기사이클이 하강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가격 전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유통비가 원가의 35%를 차지하는 항공운수업도 수익성 악화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수출증가율이 떨어지는 반면 수입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경상수지가 약 21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두바이유 가격은

99.08달러로 상반기의 102.01달러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이는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고유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투기수요가 미국의 금리인하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불거지는 등 돌발요인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고유가에 석탄값도 뚝뚝

올들어 유연탄 가격 65% 올라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대체연료 석탄(유연탄) 가격이 올들어 6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주로 발전용 연료로 쓰이는 유연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사의 원가상승은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호주 뉴캐슬의 본선인도(FOB)

가격은 1월에는 91.75달러였으나 2월에는 132.0달러로 치솟았다가 3월 122.8달러, 4월 123.0달러 등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5월에는 133.2달러로 반등했으며 6월 첫째 주 142달러, 6월 둘째 주 150달러 등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아울러 한화증권에 따르면 데이터 스트림이 집계한 석탄지수는 12일 현재 187달러로 역사적 최고가격을 기록했으며 3월 말에 비해 30% 상승했다.

이처럼 최근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면서 대체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올해 1월에는 91.75달러였으나 2월에는 132.0달러로 치솟았다가 3월 122.8달러, 4월 123.0달러 등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5월에는 133.2달러로 반등했으며 6월 첫째 주 142달러, 6월 둘째 주 150달러 등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아울러 한화증권에 따르면 데이터 스트림이 집계한 석탄지수는 12일 현재 187달러로 역사적 최고가격을 기록했으며 3월 말에 비해 30% 상승했다.

이처럼 최근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면서 대체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대주건설 등 38개 기업집단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해제

다음달부터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과 웅진 등 38개 기업집단이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날게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이 현행 79개 기업집단(계열사 1천724개)에서 41개 기업집단(계열사 1천3개)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 공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면제받게 된다.

다음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집단.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텍주, 부영, KT&G, 세아, 동양화학, 태광산업, 부산항만공사, 삼성테크스코, 미래에셋, 대상, 태영, 한솔, 유진, 농심, 태평양, 에경, 하나호텔, 한라, 쌍용양회, 대주건설, 문화방송, 한국타이어, 프라임, 보광, 삼양, 오리온, 교보생명보험, 씨엔, 대우자동차판매, 대한해운, 한국지역난방공사, 선명, 광해방직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대교.



삼성 '월드 IT 쇼' 참가 삼성전자는 17일부터 20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 IT 쇼(WIS) 2008' 전시회에 참가.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향한 삼성의 제품과 솔루션'이라는 콘셉트로 TV, PC, 프린터, 모니터,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캠코더, 홈시어터 등 다양한 IT 및 AV 제품을 출품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빛테크	생산직 현장관리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18	062-376-9748
퍼시스(에이치알)	[주5일]광주역 앞 SK텔레콤 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6/20	062-383-1756
SGS Testing Korea 광주 사무소	행정, 사무업무 담당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0	062-953-1917
SHOW 광주마케팅팀	광주지역 SHOW매장 관리,판매,고객상담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6/20	010-3416-2089
이안테크	편집디자인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6/23	062-226-5599
한국반도체공정	2008년 사무직 경력사원(인사,노무,교육)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6/23	062-953-1771
IAE 유학네트 광주지사	유학상담 및 고객지원팀 상담사원	고졸/경력무관	06/23	062-233-8171	
㈜하나드림	광고 실무 디자이너 신입/경력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23	062-974-0041
대방건설	미케팅(분양)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3	062-369-9705
유한대림	의료 제약 영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4	062-682-1978
㈜서산	장규직 영업관리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6/24	062-950-5401
㈜이이에스인프라	기계설계&CAD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4	062-961-9321
신한포토닉스	광 세라믹 제품 기계조작 및 검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25	062-949-7203
제이앤비컨설팅	[신한카드]인바운드/미납상담/해피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25	062-224-586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